



## 한반도 평화 무드 속 대북 지원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유진벨 재단, 대북제재 下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유진벨 재단은 6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까지, ‘대북제재 아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개최했다. 첫 발표는 현재 Crowell & Moring LLP 소속 David Wolff 변호사가 ‘유엔 제재와 인도적 제재 면제의 허가’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David Wolff 변호사는 “현재 UN의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의 특정 80여 단체와 개인에만 국한 돼 있으며 모든 북한 단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UN은 NGO의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막을 의도는 전혀 없다”며 “NGO 단체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할 때 UN의 수출금지 해당 품목을 북한에 보내면 면제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전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 이후 북한의 재래식무기 개발 방지를 위해 그에 관련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해 왔다. 종류로는 구리, 철, 니켈, 티타늄 등 재래식 무기 개발과 연관된 재료

뿐 아니라 사치품과 해산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NGO 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이 UN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사이드 라이브 알루세인 인권대표는 ‘식량 배급, 의료 키트 및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UN은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한 면제 조건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NGO 단체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NGO 단체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물품 수출을 유연하게 허용하되,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마련되어 있어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관련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통일부, 산자부가 대북수출허가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략 물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통일부가 전략물자위원회에 위탁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UN의 대북 제재 물품 면제 신청 제도는 세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는 “UN 산하 NGO 단체는 집적 UN에 신청이 가능하며, UN 소속이 아니라면 각 나라의 정부를 통해서 UN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는 밝혔다. 다만 각 나라의 법적 규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벨 실무 담당자는 “비타민 C는 대

북인도 사업에 중요한 물품인데, 이것의 구성성분인 아스크로브산이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된 적이 많다”며 “또한 심전도 검사, 산소호흡기 등 의료관련 품목이 전략물자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빈번히 거절 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진벨 재단 회장인 스티븐린튼 회장은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에 있어 인도주의적 물품이며 면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의 정책으로 한국 NGO의 대북 지원 및 인도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 및 고시 개정을 참석한 이인영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David Wolff 변호사는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의 대북 제재 또한 거시적인 암목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얀마, 수단 등의 예를 들어 “그들이 미국을 향해 호의적인 태도로 변화했을 때 미국의 수출입 제재 조치 또한 완화 되었다”며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으로 태도를 선호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대북 조처 또한 완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령구 기자

## 美NGO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완화 촉구”

중국 공안에게 구타 당한 한 현지 기독교인의 편지

북한에 농업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는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은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 ‘대북 관여(Engaging North Korea)’ 보고서에서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행정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42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북 정상회담에 진행된 것을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확

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될 미북관계를 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여행금지 이전 연간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1천 명 가량이었으며 일인당 평균 2천 달러의 여행 비용을 감안하면 여행금지 조치가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미친 영향은 연간 최대 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에 대한 여행금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길 제

촉구했다. 인도주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도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친우봉사단이 새로운 농사기법 전수를 위해 아리카라 풍 16상을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대북수출면허를 받는 데 1년 6개월이 걸려서 최적의 파종과 재배 시기를 놓쳤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정 일반면허5호(General License No.5)를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친우봉사단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드디어 시작했으며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매년 약 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 중 하나다.

서울평양뉴스

## “경건을 꿈꾸며”

‘2018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가 최근 예수비전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예수비전교회 제공

##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의 사람’이었다”

성경의 교리에 충실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2018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

최근 예수비전교회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주제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모형론(typology)”이라 설명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철학자, 설교자이다. 그는 1734-1735년에 일어난 코너티컷 강 계곡 부흥과 1740-1742년에 일어난 1차 대각성운동 등 두 차례에 걸친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그의 목회지에서 경험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부흥과 대각성운동의 변호자가 되었던 인물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의사 소통하는 존재’로 봤으며, 높은 보좌에 앉아 고자세로 침묵하거나 인간들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성경은 이를 위해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로, 에드워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과의 존재와 사역을 알리신다 봤다.

때문에 에드워즈는 회심이 ‘단지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과 감정의 재구성’이라 주장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감각은 성경과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계시를 이해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고 봤다.

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기를 바랐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 조현진 교수(한국성서대)는 “에드워즈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 일차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역사에 대해서도 “에드워즈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대한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의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사역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조현진 교수의 강연 외에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과 목양”(도지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건 생활”(양낙홍),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박완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정서”(서문강) 등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교회론과 목회 철학”(도지원), “성경 교리에 충실한 교회 부흥”(도지원), “설교 실제”(도지원) 등의 특강도 함께 있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예수비전교회 도지원 목사는

“흔히 신학과 교리를 강조하면 목회가 안된다”고 한다.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것과 현장 목회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다”며 “신학과 교리를 강조해도 목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컨퍼런스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현진 교수는 “에드워즈가 문자적 역사적 해석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영적으로 풀어 해석해야 하는 차원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영적인 차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조은식 기자

## UN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지원 전년 대비 60% 감소”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전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은 1천1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60% 감소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가 19일 발표한 상반기 2018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Global Humanitarian Overview 2018)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450만 달러에 비해 약 60% 감소했다고 RFA가 전했다.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자료는 원조국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북한 주민 1천800만 명을 포함해 시리아, 예멘, 남수단 등 세계 30개국의 1억 3천570만 명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19일 현재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지원

금 현황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자금 모금 현황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북 사업에는 유엔의 유엔인구기금(UNFPA)과 스위스, 독일, 스웨덴, 프랑스, 그리고 노르웨이 등 5개국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전체의 50%인 약 7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이어 스웨덴이 37%인 약 568만 달러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식량과 영양지원 사업이며 180만6천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식수 위생 사업에 131만 달러, 보건 사업에 92만 달러로 집계됐다.

서울평양뉴스

## 주일성수의 귀중한 신앙(출31:12-17, 마12:8, 행20:7)



##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

제가 2014년 12월 21일 주일 경북 영천에 있는 하나승리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는 “나의 삶과 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를 했고 오후 2시 예배 시간에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2016년 6월 26일 주일 두 번째로 와서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7년 6월 4일 주일 세 번째로 와서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전도와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018년 6월 24일 주일 네 번째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는 “주일성수의 귀중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를 하고 오후 2시 예배 시간에는 “모험심과 담력의 귀중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기진 목사님이 오전 시간에는 “주일성수”에 대한 간증 설교를 하고 오후에도 나의 삶에 대한 간증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평양 서문밖교회 주일학교 시절 이인복, 명선성, 최병복 선생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때 이인복, 명선성, 최병복 선생님들께서 “주일성수의 신앙”과 “새벽기도의 신앙”과 “순교신앙”을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몸에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10살 11살 때 평양 제 오 인민학교에 다녔는데 일요일에도 학교에 오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2년 동안 일요일에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벌을 받았고 때로는 정학을 당했지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저는 “주일성수의 신앙”과 “새벽기도의 신앙”과 “순교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을 떠나 서울로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동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주일성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쳐다보시다가 “그러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남쪽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나는 너 없이는 못살아”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쪽으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울면서 그러면 기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중의 괴수인 저를 아직까지 버리시지 않고 작은 심부름꾼으로 써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이곳 저곳에서 불러주시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일성수의 귀중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주일성수의 신앙”이나 “모험심과 담력의 신앙”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은 제가 스스로 지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지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제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되었지만 저를 늘 귀중하게 보시면서 칭찬해주시던 아버님의 순교신앙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주일성수의 신앙”과 “새벽기도의 신앙”과 “순교신앙”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 11살 때인 1948년 8월 부모님과 동생들을 평양에 두고 캄캄한 밤에 38선을 뛰어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몇몇 어른들과 함께 캄캄한 밤에 38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서서 손을 들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군이들에게 발각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감옥의 길로 그리고 순교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의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평안과 안일을 버리고 감옥과 순교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도 “주일성수의 신앙”을 몸에 지니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길로 걸어가야 학문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전해온 말씀입니다.

고난과 험난과 아픔의 길도 걸어가야 한다. 인내를 넘고 파밀을 풀리고 끝에 시

는 강을 건너서 남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초가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38선을 넘어 온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청년 한 사람이 저보고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서울로 간다고 대답을 했더니 누구와 같이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오던 사람이 불잡혔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청년이 저를 기차에 태워서 서울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저를 안위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길로 인도하신 것이라 솔직히 말해요.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7번지에 살고 계시던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모님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1,2년 동안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후에 저는 저를 서울까지 데려다 준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 알려고 애를 써서 찾아보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가 된 슬픔과 아픔을 지니게 된 저를 너무 많이 축복해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일성수의 신앙”과 “새벽기도의 신앙”과 “순교신앙”的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학교들인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38선을 훈자서 뛰어 넘은 사건은 저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일성수의 귀중한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성수의 신앙”을 지니고 살다가 죽었고, 기도에 전력하는 “새벽기도의 신앙”을 지니고 살다가 죽었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과 섬김의 신앙”을 지니고 살다가 죽었고, 일편단심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 신앙”을 지니고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과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주일성수의 신앙”을 가장 귀중한 신앙으로 여기며 “주일성수”를 철저하게 했는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주일성수의 신앙”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주일날에 예배가 아닌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식도 여행도 오락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니다.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과 교수들은 철저한 “주일성수의 신앙”을 “율법주의로” 간주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 중에서 “주일성수의 신앙”이 가장 귀중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즉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데 있다고 출 4장부터 10장까지 9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출 4:22,23).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출 5:1).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7:16).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8:1).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8:20).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9:1).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9:13).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 10:3).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유품과 그 품삯은 하나님의 유품”(출 10:18).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출 10:25,26).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며 잘 사는데 있다기 보다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데 있다고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그런데 “예배의 제사”的 중심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성수”의 예배의 제사였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성수”의 예배의 제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인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 “아신의 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

찌너”(출 31:14, 35:2, 민 15:35).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은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3).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0,11).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 5:10). “안식일 성수”의 명령은 구약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이어졌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구약 시대에 잠깐 동안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 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출 31:13,16,17).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시고 안식일의 완성자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첫 주일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

쁨과 함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첫 주일 저녁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열 명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사명과 함께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한 주간이 지난 둘째 주일 저녁에는 도마를 포함한 열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함께 모인 성도들과 종일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째 말을 밤까지 계속하매”(행 20:7) 부활이

주님께서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의 날” 곧 주일이었습니다(계 1:10).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의 주일”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인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1,11). 앞으로 하늘에서는 목회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 등 중요한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구원함을 받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생물들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천국의 예배”만이 영원토록 계속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계 5:13,14).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뿐 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7:9-12). 이것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안식일 예배” 또는 영원한 “주일 예배”的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세세 토록 돌리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받은 일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주일성수의 신앙”은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이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월드비전

# My KIDS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 MY KIDS 캠페인 참여방법!

①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입력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② 모바일을 mykids.wv.or.kr로 접속해보세요.

mykids.wv.or.kr

③ 우편을 하시면

1 월드비전 Family Cards 함께 아동 키트가 담긴 편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2 아동과 편지를 교환하여 선물을 보내거나 마음이 사는 사례를  
월드비전 아동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면 1회 아동연락처를 보고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통한 변화

1 월드비전 후원금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아동의 영양  
보건, 학습, 교육 및 디자인 지원을 합니다.

2 아동후원은 한 아버지 배고픔을 날려 줄을 기우고  
한 마음의 희망이 됩니다.

한국어 월드비전 친선대사

봉어랑 자수

이름: Dusana

나이: 9년

당신의 따뜻한 기쁨까지  
꼭 같은 기운에 긍정  
해주세요!

여행 가족과 모여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9-7000

것을 분명하고 강하게 가르칩니다. 조대교회 교부들은 모두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2세기경의 문서인 디다케와 2세기의 변증가져스틴은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 칙령을 내려 일요일에는 휴식할 것을 명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끓는 적극적이고 영속적인 도덕적 계명을 주시므로 일곱 날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 날에는 그들의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일이나 말이나 생각으로부터 온 종일 쉬어야 할 뿐 아니라 공적 내지 사적 예배행사와 자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활스 하지 박사는 “주일성수”를 무시할 때 가정과 사회는 타락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은 “주일성수”를 강조하면서 주일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20년대 한국교회에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김의우 목사님은 “주일 범한 사람들은 구약시대 같으면 때려 죽일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때려 죽이지는 않지만 죄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사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즉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 현대적 유행에 영합하며 “주일성수”를 무시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고 귀신들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11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망극하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한 평생을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일성수”를 저의 일관된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국 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주일성수의 신앙”을 강조하다가 군사정부의 미음을 사서 1977년 11월 20일 아침 남산 중앙정보부의 지하실로 불잡혀 가서 밤 늦게까지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심

문과 협박을 심하게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문하는 두 사람을 책망하기도 했고 중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심문하던 두 사람이 잠깐 쉴 때 제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글을 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데 설교 준비는 무슨 설교준비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고 나가지 않는 것은 것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다음 주일 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새벽 두 시쯤 되어서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지하의 방이었는데 창문도 없고 책상 하나만 있었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들어 누어서 아침까지 잠을 아주 잘 잔습니다. 아침에 저를 깨우더니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 때는 좋은 차에 태워주어서 여기 왔는데 갈 때도 좋은 차에 태워주어야 집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아주 좋은 차를 세우게 하고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 드리라고 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유익한 불잡혀가서 심문을 당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떠났다가 주일 오후에 돌아온 집사들 10여명을 두 달 동안 모든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군에 있는 아들을 보러 군 부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징계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모두 아시면서도 저를 많이 축복하신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저의 아버지의 순교의 피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난 저의 “주일성수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중한 신앙은 “주일성

우리들의 시간과 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는 대구에서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안수 기도를 12번 받으면서 “주일성수”와 “새벽기도”에 전념하게 되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에는 서울에서 김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주일성수”와 “새벽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죄인인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시간과 봄을 되는대로 쓰고 주일을 되는대로 지키면 우리들의 삶이 뒤죽박죽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므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순교신앙”은 물론 “새벽기도”와 “주일성수”에 충실하는 대신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에 치중하는 것은 세속화와 타락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대신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귀신들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절반만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0시 20분에 104세로 별세하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주일성수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을 아수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지키므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신앙은 “주일성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4월 10일 명성교회에서 “온전한 주일성수의 신앙을 염원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모임에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발제한 발제들을 요약해서 소개하므로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정호 목사님의 발제를 요약해 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주일저녁 예배까지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제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 한국교회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배중심의 삶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쓸 시간 다 쓰고, 쉴 시간 다 수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예배자로서의 체면만 살리겠다는 생각자체가 문제의 출발이라

여겨집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예배는 참된 예배로서 품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일저녁 예배를 포함한 주일성수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일성수는 한국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라 확신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가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주님께 발전되어 쓰임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고 훈 목사님의 발제를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교회가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 이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정식으로

만나신 것은 주일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주일 새벽부터 시작한 하루입니다. 밤이 포함된 24시간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한국의 초대교회는 모이길 힘썼습니다.

박해시대 청교도 신앙이 그랬습니다. 피난 오신 성도들의 신앙도 오직 모이기에 힘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유도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똑바로 드리겠다고 맞서다가 결국 순교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선

양을 이어받아, 세상의 것을 누리고 쉬는데에 우선 순위를 두는 대신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교회의 주일 밤 예배가 갖고 온 유익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배를 위해 한다는 것과 예배를 대신할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삼환 목사님의 발제를 소개해서 소개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주일성수와 새벽기도를 영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예배를 철저히 강조합니다. 주일에 본 예배와 저녁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는 월요기도회가 있고, 수요일에는 수요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좀 피곤해도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많이 바치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교인들의 경례에 하늘의 복이요 땅의 기름짐이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본다면 잠자리 편할지 몰라고 장기적으로 교인들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저녁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럴수록 영적 전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수해야 합니다.”

과 발표를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아나겠구나 하는 희망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교회의 미래는 주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주일과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속 받은 신자들의 영육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약속의 날로 성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건강해집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예배답게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만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박교수님께서 오후 예배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편하다. 오후에 한번 예배보고 마니까 편하네’ 생각하게 된 것이 한국에 전염된 것이 아닌가,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축소하거나 미루자는 것이 목회자들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닌데, 이민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옮겨지고... 그것이 지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주일성수와 예배를 세계에 전하고 복음을 역수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

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

5000원      간별: 일간

7월 19일

---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http://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 woman with short dark hair, wearing a light green cardigan over a white top, is smiling and holding a large, yellow, cartoonish piggy bank. The background is a gradient from blue to red. In the top left corner, there is a logo for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 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 교회건강연구소장 이효상 목사 기고



이효상 목사

몇 해전 교계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보았다. 한국교회가 빠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응답자의 90%가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를 지도자들의 명예와 육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 적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기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라 지적했고, 한국교회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을 교권과 명예에 대한 '지도자들의 육심'이라 답해 한국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엿보게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지도자들의 문

제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지도자들 때문에 개신교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국교회는 이미 노화되고 고령화되어 6.13지방선거에서 보듯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다음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올드보이』(Old Boy)는 박찬우 감독이 2003년에 찍은 영화다. 이우도 모른 채 15년을 간직한 남자가 자신이 감금된 이유를 알아내는 과정을 그렸다. 이처럼 기준세대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며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되는 세대를 가리켜 일명 '올드보이'라고 부른다.

한국교회의 문제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후유증도 따지고 보면 일선 교회나 목회자, 교인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결국 연합기관의 사분오열 사태도 '지도자들의 문제'라 말할 수 밖에 없다.

교계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지면 역할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치적 수완이나 전직 경력이 화려한 정치꾼들과 노인들이 제일 앞줄의 감투를 차지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단 순位 의해 위계질서가 만들

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은퇴한 70대 노인이 지시하고 50, 60대는 어울리게 된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회의하고 밥먹고 모여 한 일이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나 감투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고, 패거리들 늘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지도자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교계 기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말이다.

지도자는 연예인이 아니고, 지도력은 장식물이 아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 자체가 목적이지만, 지도자는 현실을 탐색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도력을 사용한다. 이런 지도력은 평상시에 단련 돼 실전(實戰)에서 빛나고 결과로 평가받는다.

리시아 월드컵에서 보듯 지도력이 장식물이 되면, 평상시 의전(儀典)에는 강해도 실전에서는 오합지졸 약한 군대가 되기 쉽다.

한국교회의 마음은 '연합기관'을 떠나 있는 듯하다. 분열과 갈등, 혼란세월 10년이다. 이쯤되면 부부싸움에 접나간 자식 돌아오게 하듯 지도자들이 '연합'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연합하지 못하

면 연합기관 간판내리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한목협의 성명처럼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한 외침이 바다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겨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살길이 있다.

'교단 연합기관'들의 통합논의가 몇 년 째 매주 기사화 된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해 준다. 지리멸렬한 연합기관이 한국교회의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분열의 연장이었다.

이런 관심밖의 잊혀진 연합기관의 행사

를 보면 마음이 찢힐 때가 많다.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이들의 교회와 시대를 향한 고민과 걱정이 왜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가. 왜 이들은 자신들끼리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

'한국교회를 대표하겠다'는 이런 여러 연합기관들을 보면 20명 가까운 공동회장들이 60대 중반에서 70대다. 총회장을 역임하고 물려났거나 아니면 은퇴한 분들이 모여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올드하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인적 구성의 기구는 '연합운동은 늙은 정치꾼 올드보이들의 전유물인가'라는 인상을

또 한 번 주게 된다. 이런 기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나 이미 굳어버린 이런 경로당 이미지와 사고로 인해 그 폭(幅)을 좁히는 손실이 더 크다.

차라리 저분들이 나서서 아끼는 후배나 제자들을 설득해 이런 기구를 운영하게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기업이나 어떤 조직도 젊은 세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길러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난 시절 어떤 기관의 대표회장은 소위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열심이었다.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10년 이상을 총회장과 대표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 자리가 '벼슬'처럼 되고 '총회장'이 직업이 되었다.

그 단체 구성원들도 그와 함께 덩달아 늙었고 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세상 흐름과 감각을 따라잡는 게 어려워진다.

아무리 명분이 뛰어나고 인품, 신망이 뛰어나도 조직이 망하면 그는 최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조금 젊다고 하는 60대도 마찬가지이다. 호랑이 사라진 골목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막상 본인들이 60대에 들어서면 메스껍게 소개되는 조직을 만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 주력한다. 정체이나 경륜과 상관없이 인물위주의 이벤트라는 이미 선배 '올드보

이'들이 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래서 또 다시 '올드보이'의 시대를 만든다.

늙은 교회는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일에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장기적 정책 대안은 없이 1년적 자리나 인물중심의 '올드보이'들의 전성시대인가?

그래서인지 혼돈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더욱 요구되지만,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교회, 변화할 것인가? 변신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정 걱정을 한다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

50대 대표, 40대 총무와 사무총장이라는 인적쇄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교단이든 기관이든 같은 자리에 세 번 이상 역임했으면 그는 이미 원로다. 자신은 뒤에서 경제·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은 또 다른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글을 읽으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며 열을 많이 받으신다면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그는 이미 '사고(思考)의 올드보이'이다.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유연성도, 사회 변화를 읽고 받아 드리는 수용성도 떨어지니 그것이 그 수준이자 한국교회의 한 계이다.

##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비전·섬김·실행으로 세상을 치유

### 한국기독교작장선교연합회 후원회 김진혁 사무총장 칼럼



김진혁 사무총장

리더십에 관한 책과 세미나가 넘쳐난다.

매년 세계 경제포럼은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경제인들이 지구촌의 현안을 모색한다. 2017년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었다. 이처럼 리더십은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기업, 심지어 가정에 서까지 중요한 과제이다.

리더십이란 조직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의 역량과 영향력이다. 구성원의 소통과 학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자질이

다. 일반 리더십과 성경적 리더십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크리스천으로서 꼭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하여 알아본다. 리더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공감과 소명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목사이며 작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 법칙」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있는 것을 걱정하라"고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주장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지위(Position)이다. 당신의 특정한 지위가 사람들을 의무감으로 따르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허용(Permiss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리더를 따른다. 세 번째 단계는 성과(Production)로 리더는 결과물을 날아 조직의 성공에 기여한다. 네 번째 단계

는 인물계발(People)로 후계자 양성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인격(Personhood)이다. 크리스천 리더십과 궤를 같이 한다.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과 일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고의 리더십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경우에, 당신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는가? 아니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가?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적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크리스천 리더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말보다 행동으로, 관리가 아닌 스스로 따르게 하는 능력이다.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7)

크리스천 리더십의 3가지 요소는

첫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신앙인. 크리스천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킨다.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비저너리(visionary)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11절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 고침'은 다양한 은사지만 성령 리더십

은 동일하다. 개인의 스펙이나 사회적 신분, 재산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 각각 개별적으로 받은 소명(使命)을 담당하는 셀프리더인 셈이다. 비전의 리더는 자기 생각, 애망,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들린 사람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 섬기는 종의 솔선수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처럼 말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10장 43)

신양인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고 밭을

씻겨 준다. 긍휼과 섬김은 예수 리더십의 핵심이며,

그분의 비전이다. 마태 테레사(1910~1997), 노벨 평화상과 사도바울처럼 예수의 심장을 품고 섬기는 리더가 되자. 지지자를 모집하거나 추종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게 하는 영적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

셋째 사랑의 실천이다. 크리스천(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고, 허물을 용납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살피고 용기를 북돋운다. 기독교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희생과 나눔, 섬김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덕목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 그 영향력은 우리를 통해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에서 나온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크리스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는다. 언제가 기도하는 아급과 요셉 그리고 사랑의 원자란 손양원 목사처럼 종교적 의식이 아닌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행이 요구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마 20:25)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천국의 상급을 받는 영적

리더십(Trust Based Leadership)을 기대한다.

오늘날 교회가 리더십 위기에 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다. 자신을 리더라고 느끼면서도 정작 크리스천의 중요한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로만 외치는 기복신앙에 갇혀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게 오르고자 애쓰지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리더십의 귀감은 절대적으로 본받고 신앙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크리스천 리더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행동하는 신앙이다.

리더십은 하나님에 부여하신 은사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계발될 수 없다. 리더십의 기본토대는 믿음과 신뢰다. 리더십은 봉사를 통해 가치를 부여한다.

리더가 되고 싶은가? 비전, 섬김, 사랑의 실천을 따르라!

##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었어요. 낡고 해쳐서 더 이상 입을 치웠던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낡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어떻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라인과, 오래되고, 물풀였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트 이효자

금정아일스피스 | 그림: 배현경 | 출판: 이동미디어 | ISBN 978-89-540-0900-9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토서 문의 02-704-7055